

| 에세이 제목  | Don't be afraid of English! |
|---|-----------------------------|
| 제출학생 학과   | 식품공학과                       |
| <p>어렸을 때부터 저에게 영어는 이유 없이 무섭고 두려운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영어를 피해 한참을 도망 다니다가 3학년이 되어서야 취업시장에서 영어 없이는 살아남을 수 없다는 중요한 사실을 깨닫고 영어에 대한 두려움을 없애보고자 신청한 것이 R 교수님의 통합영어 수업이었습니다. 단시간에 이렇게 영어와 친해질 줄 알았다면... 이 강의를 빨리 알지 못한 것이 후회됩니다. 그래서 이 강의를 예전에 저와 같은 영어접쟁이 학우 분들에게 꼭 추천해 주고 싶습니다.</p> <p>비대면 온라인 강의로 진행된 통합영어 수업은 일주일에 두 번 진행되었으며 한번은 녹화된 영상을 통한 강의, 한 번은 Zoom을 이용한 실시간 강의로 진행되었습니다. 일주일에 한 가지의 일상적인 주제(요리와 레스토랑, 노래와 라이브공연, 취미, 운동과 같은)에 관하여 학습하는데 먼저 녹화된 영상 강의를 보고 교수님께서 내주신 과제를 작성하여 일주일에 한번 제출했습니다. 과제는 주제와 관련된 단어, 관용표현등과 같이 교재에 담긴 내용을 학습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항상 마지막에는 짧은 글을 작문할 수 있는 공간을 내어 자신의 생각을 영어로 정리해 볼 수 있게 해주셨습니다. 포인트는 과제물 안에 항상 주제와 관련된 10 가지 정도의 질문이 담겨 있다는 것입니다. 이 질문들에 관한 답변은 과제물로 제출하는 것이 아니라 같은 주의 다음시간 실시간 강의에서 영어로 구사해야 합니다.</p> <p>실시간 강의에서는 Zoom프로그램을 통하여 무작위로 두 사람만이 대화할 수 있는 소그룹을 만들어 주시는데 이때, 서로 과제물에 담겨있던 주제와 관련된 질문들을 시작으로 (예를 들면, 가장 기억에 남는 콘서트에 대한 이야기)하여 영어로 자유롭게 대화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사실, 영어를 듣는 것은 초등학교일 때부터 수능준비를 할 때까지 끊임없이 해왔기 때문에 어렵지 않았지만 입 밖으로 영어를 내뱉는 것 특히, 제 생각을 영어로 말하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처음에는 제 생각을 문장은커녕 단어로도 표현하기 어려웠고 ‘어떡하지?’라는 생각이 머릿속을 가득 채웠습니다. 하지만 5,6주차쯤 지나자 점차 영어를 사용하여 제 생각을 문장으로 말 할 수 있게 되었고 일상적인 주제 또 제가 관심을 갖고 있는 주제들에 대해서 수업을 같이 듣는 친구들과 소통할 수 있는 시간을 가지면서 통합영어 수업 시간이 점점 재미있어졌고 기다리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같이 대화를 나눈 후에는 내용을 정리하여 제출해야 했는데 처음에 흥미가 없을 때는 이 덕분에 조금이라도 더 풍부한 대화를 할 수 있었고, 이후에는 대화를 나누는 것 자체에 흥미를 갖게 되어 과제를 작성하는 것에 중점을 두기 보다는 진심으로 재미를 느끼며 수업에 참여했습니다. 저는 스스로 영어에 대한 두려움이 조금씩 줄어들고 있다는 것을 느꼈고 영어를 입 밖으로 내뱉을수록 자연스럽게 구사할 수 있다는 것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수업 후반쯤에는 학우들과 대화를 나눌 때, 더 정확한 이해가 필요하거나 추가적인 궁금증이 생기면 스스로 질문할 수 있었습니다.</p> <p>두 사람이 한 그룹을 이루는 수업 외에도 네 사람이 한 그룹으로 대화하는 방식의 수업도</p> |                             |

진행되었는데 이 그룹 활동은 네 사람이 토론하는 형식으로 진행되었습니다. 주제에 따라 다양한 활동을 해볼 수 있었는데 ‘여행’이 주제였던 주차는 교수님께 한국의 여행지를 이용하여 영어를 이용하여 여행코스를 추천하는 활동을 하였고 ‘음악과 콘서트’가 주제였던 주차는 조별로 음악콘서트의 리스트(음악장르 및 가수이름)를 작성해보는 활동을 하였습니다. 서로 기억에 남는 여행지와 그곳에서의 음식들, 또 좋아하는 음악장르와 팝가수에 대해 영어로 대화를 나누면서 수업에 흥미를 가지고 참여할 수 있었습니다.

통합영어의 이러한 수업방식에 참여하며 느꼈던 것은 학생들 간의 활발한 상호작용은 수업의 집중도와 흥미를 높여 수업의 질이 향상된다는 것이었습니다. 실제로 이번 통합영어 수업은 대면강의, 비대면 강의를 통틀어 학생들 간에 가장 많은 상호작용이 있었고, 이는 대면 강의 시 오직 교수님의 강의로만 이루어졌던 수업보다 비대면 강의로 이루어진 통합영어의 수업이 질이 높게 느껴졌습니다.

제가 이 강의를 추천하는 가장 큰 이유는 TTT(Talk Talk Talk) 프로젝트 때문입니다. TTT 프로젝트는 4-5명으로 구성된 소그룹에서 자신이 원하는 주제에 관하여 발표자료(ppt)와 영어를 사용하여 팀원들에게 5분가량 설명하는 식으로 발표를 진행하는 프로젝트로, 하나의 큰 주제 안에서 소주제 3가지를 정해 2주 동안 3회 발표합니다. 저는 식품공학과인 만큼 식품에 관심이 많기 때문에 비전공자도 재미있게 다가갈 수 있는 식품에 관련된 주제(식물성 달걀에 대한 소개 등)에 관하여 발표하였습니다. 저와 같은 그룹이었던 다른 학우들은 자신이 추천하고 싶은 영화, 키우던 강아지, 여름에 어울리는 패션아이템과 같이 각자 자신이 관심 있고 원하는 주제에 관하여 발표를 진행했습니다.

처음 교수님께서 이 프로젝트를 진행할 것이라고 설명해주셨을 때는 매우 힘들 것이라는 생각으로 머릿속이 가득 찼습니다. 짧은 시간 간단하게 대화를 진행하는 것도 아니고 꽤 긴 시간동안 혼자서 영어로 말해야 한다는 부담감도 있었고, 그 당시에는 영어에 대한 자신감도 발표에 대한 자신감도 많이 부족했기 때문에 주제선정부터 맞춤법, 심지어 저의 영어발음까지 걱정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제가 이 프로젝트를 무사히 끝내고 영어에 대한 자신감을 얻을 수 있었던 이유는 교수님께서 많은 부분 도와주셨기 때문입니다. 교수님께서 학생들의 진행해야할 분량과 동일한 분량의 발표 자료를 준비하셔서 동영상 강의를 통해 발표 예시를 보여주셨고 뿐만 아니라 학생마다 발표 계획서를 작성하게 하여 그 내용을 Zoom을 통해 실시간으로 1:1 피드백을 해주셨습니다. 또한 첫 번째 발표가 끝난 뒤에도 1:1 피드백을 통해 개선할 점과 좋았던 부분, 앞으로 수업에 대한 자세한 계획을 말씀해 주셨고 자유롭게 질문할 수 있게 해주셨습니다. 또한 추가적인 질문사항이 생기면 단독방(단체SNS 대화방)과 이메일을 통하여 언제든지 소통할 수 있도록 해주셨습니다. 이렇게 R 교수님께서 원활한 소통을 통해 제가 수업에 잘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발판을 마련해주셨습니다.

TTT 프로젝트는 자신의 발표를 잘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다른 팀원의 발표를 듣고 저널을 작성하는 것 또한 저의 발표 못지않게 중요한 부분이었습니다. 저널은 3가지 요소로 구성되어 있었으며, 첫 번째 요소는 제가 발표하기 전에는 저의 생각과 다짐을 적고 발표 후에는 제 발표가 어땠는지(잘한 점, 개선할 점)를 적는 것이었습니다. 이 저널 작성을 통해서

제가 무엇을 개선해야 할지 다시 한 번 생각해보면서 생각을 정리한 후 약점을 보완할 수 있었습니다. 첫 번째 발표에서는 발음이 어눌한 부분이 있었고, 조금 이해하기 어려운 표현을 선택하였었기 때문에 팀원들의 이해가 원활하지 못했을 수 있겠다는 것을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러한 점들을 개선하여 두 번째 발표를 할 때는 팀원들이 더 수월하게 이해하는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두 번째 요소는 다른 팀원들의 발표를 듣고 팀원이 발표한 내용이 무엇인지 또 무엇을 배웠는지 적는 것이었습니다. 이 부분을 작성하기 위해 팀원 발표 시 조금 더 자세한 부분까지 이해하려고 노력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요소는 이 프로젝트를 통해 영어실력이 향상되었는지 그리고 프로젝트를 진행하면서 있었던 어려운 부분을 적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이 부분에서 교수님께서서는 단순히 평가를 위해서 프로젝트를 만드신 것이 아니라 사람들 앞에서 영어로 발표를 하고 또 이를 준비하는 과정을 통하여 학생들의 직접적인 영어 능력 향상을 위하여 프로젝트를 진행하시고 계시는 것이 마음에 와 닿았습니다.

R 교수님께서서는 항상 영어의 철자와 문법은 중요하지 않다고 모르는 것이 당연하고 틀려도 된다고, 다만 자신이 알고 있는 수준 안에서 써보라고 말해보라고 말씀해주셨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영어 교육을 받을 때 들어왔던 말들과는 너무 달라서 처음에는 교수님의 뜻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교수님께서 무엇을 목표로 이 수업을 하신 것인지 수업이 마무리된 후에 알 수 있었습니다. 저는 이 수업을 듣고 나서 영어를 쓰고 말하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 현저히 줄어들었고 영어에 대해 흥미가 생겼습니다. 정말 신기하게도 자신감이 생겼습니다. 아니, 생겨버렸습니다. 이 수업을 듣기 바로 전, 작년 겨울 방학에는 억지로 토익 공부를 하고 있던 저인데 이번 방학에는 미국 방송프로그램의 영어자막을 보며 따라 읽기를 하고 관용표현을 외우고 있는 저의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R 교수님의 통합영어 수업은 저같이 영어 공부를 해야 된다는 것은 알지만 흥미가 없고 마음의 벽이 있는 학생들을 바꿔 줄 수 있는 강의라고 생각되어 이를 널리 알리고자 이 글을 쓰게 되었습니다.

학생들은 전공과목은 사회에 나아가 실제로 사용하는 과목(학문)이라고 여기기 때문에 열심히 공부해야 할 과목이라고 생각하고 소신껏 과목을 선택하고 공부하지만 교양과목은 소위 ‘꿀교양’이라고 하여 강의 내용이 이해하기 쉬우며 점수를 잘 주시는 교수님의 강의를 찾아 듣는 학생들이 많습니다. 저 또한 그랬습니다. 물론, 성적을 잘 받는 것도 중요하고 열심히 수업에 참여한다면 어떤 과목이든 얻어가는 것이 많습니다. 하지만 교양과목을 점수를 얻기 위한 수단으로만 여기지 말고 전공지식 외에 또 다른 지식을 얻는 수단으로, 또한 말 그대로 자신의 부족한 점을 채울 수 있는 교양과목을 선택한다면 인격 함양을 통해 현재보다 나은 사람으로 대학을 졸업 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가지게 되었습니다.